



缘起决清

普陀文史资料第二辑



中国文史出版社

缘起沈清

(普陀文史资料第二辑)

政协舟山市普陀区委员会教文卫体与文史委员会编

2005年12月

图书在版编目(CIP)数据

缘起沈清/陈桂珍 主编.--北京:中国文史出版社,2005.12
(学人文丛第2集)

ISBN 7-5034-1632-7

I.缘… II.陈… III.社-中国-当代 IV.F2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5)第 036096 号

书 名	缘起沈清
主 编	陈桂珍
出 版	中国文史出版社
发 行	中国文史出版社 发行部
地 址	北京西城太平桥大街 23 号(100811)
经 销	全国新华书店
责任编辑	李春华
印 刷	定海同润图文印刷中心
开 本	850×1168 1/32 开
字 数	177 千字
印 张	10
印 数	1-2000
版 次	2005 年 12 月第 1 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7-5034-1632-7/G·0313
定 价	定价 30.00 元

本书如有印装质量问题,请直接与印刷厂联系

序 言

政协舟山市普陀区委员会主席 牟永胜

谁也不会想到,我区政协的第二辑文史资料竟会与韩国的沈清故事搭上桥。尽管我没有到过韩国,但当我读完文史委同志送交的该书样稿后,不由得为中韩两国源远流长的友好交往历史而感触,更为沈清的故事而感叹。

中国浙江省舟山市普陀区政府和韩国全罗南道谷城郡政府是在 2001 年的 11 月份建立起友好交流关系的,这主要是缘于韩国古典小说《沈清传》的牵线搭桥。如同我国古典小说《红楼梦》、《三国演义》、《水浒传》、《西游记》在国人中耳熟能详一样,《沈清传》在韩国也是一本家喻户晓的古典小说,沈清至孝至善至美的形象一直是韩国人民心中崇拜的偶像。根据韩国沈清研究学者的研究资料表明,沈清是以实存人物为原型创作的作品,其原型就是全罗南道谷城郡的万古孝女元洪庄。如今,谷城郡高举沈清这面“孝”的旗帜作为观光旅游发展的灵魂,致力于“孝的城市谷城”、“观光城市谷城”的建

设,每年该地召开沈清宣传大会,以增强地区文化的自豪感。从沈清的孝行中我们都可以深切感受到儒家忠孝伦理意识的精神价值,感受到“孝”是世界上最为美丽的名字。同样的故事,同样的感动。沈清的故事,曾经哺育了千千万万的韩国人,同样沈清的孝行也使我们感动至深。自从普陀和谷城两地建立友好交流关系以来,两地政府高层互访频繁,两地以政府外侨办和企划弘报室作为窗口,每年派出公务人员互相交流学习。同时,两地文化和经贸交流日趋紧密,两地学者的沈清学术研究更趋热烈。沈清文化的历史延续之长,积淀之厚,可谓是中韩两国民族文化的一朵奇葩。

相信《缘起沈清》一书的出版,将为今后更好地研究沈清文化奠定良好的基础。同时,我期待着中韩两国的学者将会有更为翔实的研究成果展现在世人面前。

寥寥数语,权当为序。

2005年12月

서 문

정치협상 부산시 보타구 위원회 주석 모영승

우리 보타구 정치협상위원회 제2집 문사자료가 뜻밖에도 한국 심청 이야기와 인연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나는 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문사위원회 동료가 가져온 이 책의 내용을 다 읽고 나서 나도 모르게 중한양국의 길고 긴 우의 와 왕래역사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아울러 심청의 이야기로 인하여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중국 절강성 주산시 보타구 정부와 한국 전라남도 곡성군은 2001년11월에 우호교류관계를 맺었다. 이 모든 것은 한국 고전소설<<심청전>>이 인연이 되어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홍루몽>>,<<삼국연의>>,<<수호전>>,<<서유기>>가 중국 국민중에 여러 번 들어 귀에 익어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이,<<심청전>>역시 한국에서도 누구나 다 알고있는 고전소설이다.심청의 효심과 아름다운 이미지는 항상 한국국민의 마음속에 자리하고있다.

한국 심청연구학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심청은 실존인물을 원형으로 창작한 작품이다.그 원형은 바로 한국 전라남도 곡성군의 만고효녀 원홍장이다.지금 곡성군에서는 심청 “효”의 깃발을 높이 들고 관광사업발전을 핵심으로 “효의

도시 곡성”, “관광 도시 곡성” 건설에 힘쓰고있다.해마다 이곳에서는 심청축제대회를 열어 지방축제문화의 자부심을 높이고있다.우리 모두는 심청의 효행 중에서 유가충효논리의식(儒家忠孝論理意識)의 정신가치(精神價值)를 가슴깊이 새겼으며, “효”는 이 세상에서 가장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을 느꼈다. 같은 이야기, 같은 감동, 심청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예의 바른 한국사람을 배양했으며, 심청의 효행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다.보타와 곡성 양지간의 우호교류관계는 건립에서부터 양지정부의 고위관계자의 빈번한 상호방문과 양지간 보타정부 외사와 교무사무실과 곡성군청 주민자치과 두 기구를 통해서 해마다 공무원연수생을 파견하는등 상호교류를 하고있다.동시에 양지문화와 경제무역교류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양지간 학자의 심청학술연구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심청문화의 역사는 길고 긴 세월이 흘러서 후대에 중한 양국의 민족문화의 한 송이 진기한 꽃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연기심청>> 이 책의 출판은 앞으로 심청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영구하는데 아주 좋은 기초를 닦아놓을 것으로 믿는다.동시에 나는 중한 양국의 학자들이 앞으로 더욱 상세하고 확실한 연구성과를 세상사람 눈앞에 펼쳐놓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매우 짧은 글이나마 서문으로 갈음한다.

2005년 12월

目 录

序言	牟永胜(1)
----------	--------

【普陀与谷城】

小说做媒 孝女牵线	谢国平 邬永昌(3)
为韩国孝女盖新“家”	冯 君(9)
在韩国谷城郡做客	陈桂珍(14)
谷城印象	沈 聪(22)
陪同韩国学者寻访“沈清”史迹	邬永昌(28)
从“沈清故事”看普陀区在中韩友好交往中的历史地位	陈桂珍(35)
赴韩国旅游促销考察记	赵东盛(39)
出访韩国全罗南道谷城郡的考察报告 ...	忻 怡(47)
记“沈清故居”复原工程奠基盛会	沈品权(57)
中韩竹筏跨海漂流探险记	尹明喆(韩)(62)
韩国记者采访普陀区政府区长吴晓东	朴丁夏(韩)(81)
特别采访	谷城新闻报(韩)(84)

中国普陀区公务员谷城郡研修

..... 谷城新闻报(韩)(86)

谷城郡·中国普陀“共同努力吧”

..... 湖南新闻报(韩)(88)

中国普陀区正忙着建设“沈清公园”

..... 谷城新闻报(韩)(89)

谷城郡使节团及文化艺术团访问中国浙江省舟山市

普陀区 谷城新闻报(韩)(91)

普陀区“友好交流使节团”访问谷城郡

..... 谷城新闻报(韩)(93)

中国普陀区旅游促销团访问谷城

..... 谷城新闻报(韩)(95)

中国普陀区友好交流使节团·越剧演出团访问谷城

演出“沈清传” 大韩日报 记者 张明国(96)

中国艺术团演出“越剧”《沈清传》

..... 全南道民日报 记者 朴成洙(98)

【沈清与沈家门】

沈清的故事 王连胜(101)

记录元洪庄的碑文 王连胜(106)

《沈清传》的渊源 王连胜(113)

从元洪庄到孝女沈清 王连胜(118)



沈清与沈国公	王连胜(123)
论沈家门地名传说	王连胜(128)
揭开沈家门地名形成原因和起始年代之谜	王连胜(134)
东海何处沈家“门”	王连胜(144)
沈清故事和韩国观音信仰	王连胜(151)
《沈清传》与韩半岛的儒家文化	王连胜(160)
从沈清祭海看古代殉葬风俗	王连胜(166)
沈清故事与中韩传统友谊	王连胜(172)
临水堂与苏浪浦	王连胜(178)
“沈家”门世系渐明沈国公有了眉目	王连胜(184)
韩国孝女沈清东传与普陀观音文化	邬永昌(189)
沈家门历史地理位置及其变迁	沈品权(195)
天下沈氏出竹墩	陈桂珍(204)
湖州武康记行	沈品权(212)
“沈清故居”文化内涵的布展构想	沈品权(222)

【高丽道头与新罗礁】

普陀山有个高丽道头遗址	王 雷(233)
高丽道头遗址找到	王连胜 胡 牧(238)
五“龙”围垦司基湾	王连胜 胡 牧(242)
万国梯航大士家	王连胜 胡 牧(246)

宋代与韩半岛的海上交流	王连胜(251)
寻找千年新罗礁的故事	王自夫(261)
千年新罗礁:见证“东亚海上丝绸之路”	谢国平(266)
普陀山新罗礁钩沉	王连胜(273)
新罗礁形成年代小考	王连胜(277)
揭开触礁者之谜	王连胜(280)
新罗人与“海天佛国”	王连胜(284)
新罗礁、新罗人与观音道场	王连胜(288)
张大使与普陀山新罗礁	王连胜(292)
新罗礁迷失原因及其重要地位	王连胜(297)
确定新罗礁位置之证据	王连胜(301)
“海天佛国”与观音文化东传	王连胜(310)
编后记	(316)

목 录

서언	牟永勝 (1)
----------	---------

보타와 곡성

소설이 중매를 서고 효녀가 줄을 놓다	謝國平 郭永昌 (3)
한국효녀를 위하여 새 “집”을 짓다	馮 君 (9)
한국 곡성에서 손님이 되다	陳桂珍 (14)
곡성 인상(이미지)	沈 聰 (22)
한국학자를 모시고 “심청”유적을 찾아가 보다	郭永昌 (28)
“심청이야기”부터 말해보자	陳桂珍 (35)
한국에서의 시찰기록	趙東盛 (39)
한국 전라남도 방문 시찰보고	忻 怡 (47)
“심청공원”정초의식 기록	沈品權 (57)
중한 뗏목 표류탐험	尹明喆(韓) (62)
한국기자가 보타구 정부 오효동 구장님을 취재하다	朴丁夏(韓) (81)
특별 취재.....	谷城新聞報(韓) (84)
중국 보타구 공무원 곡성군에서 연수하다	谷城新聞報(韓) (86)

곡성군 * 보타구 “잘해봅시다”

.....湖南新聞報(韓) (88)

보타구는 “심청공원”조성 한창 谷城新聞報(韓) (89)

곡성군 사절단 보타 방문 谷城新聞報(韓) (91)

보타구 “우호교류사절단” 곡성 방문

..... 谷城新聞報(韓) (93)

보타 관광 판촉단 곡성 방문 谷城新聞報(韓) (95)

중국 보타구 우호교류사절단---월극 공연단 곡성방문

“심청전”공연 大韓日報記者 張明國 (96)

중국 예술단 “월극”<<심청전>>공연

..... 全南道民日報 記者 朴成洙 (98)

심청과 심가문

심청의 이야기.....王連勝 (101)

원홍장의 비문 기록王連勝 (106)

<<심청전>>의 연원王連勝 (113)

원홍장부터 효녀심청까지.....王連勝 (118)

심청과 심국공王連勝 (123)

심가문 지명 전설을 논하다王連勝 (128)

심가문 지명 형성원인과 시작년대 수수께끼를 벗기다

..... 王連勝 (134)

동해 어느곳이 심가 “문”인가? 王連勝 (144)

심청이야기와 한국관음신앙 王連勝 (151)

《심청전》과 한국의 유가문화..... 王連勝 (160)

11

암초에 부딪친 수수께끼를 벗기다	王連勝 (280)
신라인과 “해천불국”	王連勝 (284)
신라초,신라인과 관음도량	王連勝 (288)
장대사와 보타산 신라초	王連勝 (292)
신라초를 잃어버린 원인 및 중요지위	王連勝 (297)
신라초 위치를 확정하는 증거	王連勝 (301)
“해천불국”과 관음문화 전파	王連勝 (310)

普陀与谷城

普陀与谷城



